

리씽킹 서울

Book Review

도시,
과거에서
미래를 보다

서울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가기, 그 길을 찾아서
김경민·박재민, <리씽킹 서울>, 2013



한국집단지구

책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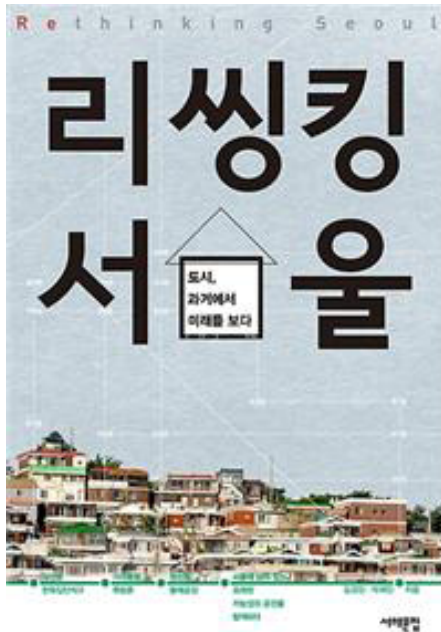
문지음

오해원

김경민 | 박재민

지음

가능성의 공간을
검색하다



〈리씽킹 서울〉
 저자 : 김경민·박재민
 서해문집, 2013, 264쪽

*리뷰어: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서평 의뢰를 받고 어떤 책에 대해 쓸까 고민하다가 환경대학원에 함께 재직하고 있는 김경민 교수가 공저한 “리씽킹 서울(Rethinking Seoul)”이란 책을 골랐다.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서평을 쓴다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같은 대학원, 같은 과에 재직하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에 동료 교수인 김경민 교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환경대학원이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도시공간계획에 대해 정말 학제간 협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다. 아니, 좀 더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 서울을 그 어떤 도시보다 아끼는 서울시민으로서 김경민 교수의 고민과 제안을 듣고 싶었다.

서울은 단지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연인인 ‘나’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다. 대학 진학으로 인해 스무 살 때부터 살기 시작한 곳, 내 인생의 절반이 훨씬 넘는 시간을 살았기에 많은 추억이 스며있는 곳이자 이제 내 자식들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30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을 보낸 곳이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서울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하고 서울이란 공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전공 특성으로 인해 너무 높게 올라가고 너무 깊게 내려가며 자꾸만 깊어지는 건물들을 보며 이 건물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단열 성능을 높여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일까를 고민하곤 한다. 특히 서울이 소비하는 전력의 3%조차 생산하지 않고 다른 지역들에 기대어 전력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또 건물의 배열이 바람의 흐름을 막거나 경관과 조망을 해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긴 한다. 그런데 좀 더 크게 서울의 역사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은 그닥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서울 걷기”를 시작한 남편의 권유에 못 이겨 잠깐씩 주말

프롤로그

서울의 잊힌 가능성의 장소들

제1장

서론 - 왜 디벨로퍼인가

제2장

종로 익선동 한옥집단지구

제3장

구로공단 가리봉동 쪽방촌

제4장

동대문 창신동 봉제공장

제5장

보론 - 신텐디에서 티엔즈팡까지

에필로그

개발과 보존의 균형 그리고 전략

에 시간을 내어 서울의 이 곳 저 곳을 돌아보면서 서울을 다시 보게 되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근대화 과정을 치열하게 담아낸 도시,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의 수도와 달리 산과 강을 모두 품은 도시.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했던 1985년의 서울과 2014년 현재 서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인기리에 방영 되었던 SBS 수목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첫 화면은 주인공인 외계인 도민준(김수현 분)이 자기 별에서 지구로 와서 보낸 지난 400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외형적 변화를 빠른 화면으로 담아내서 보여준다. 그야말로 쌍천백해를 넘어 경천동지에 가까운 변화다. 오랜 고도 서울의 변화는 두껍게 쌓인 시간과 그간의 다기한 역사를 거치며 빚어진 결과인만큼 엄청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의도에 따라 서울을 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다른 의지로 다른 변화를 이뤄갈 수도 있기에 우리가 어떤 관

점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에서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전략은 대규모 철거 후 초대형 건물(Mega-structure)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말한다,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올릴 가능성의 공간들을 찾아서 낡고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철거하는 대신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어 재활용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창조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길이라고. 그리고 재개발 압력에 위태롭게 놓인,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여러 지역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내한다. 종로 익선동 한옥집단지구에서 출발해서 구로공단 가리봉동 쪽방촌을 거쳐 동대문 창신동 봉제공장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데 이런 가능성의 싹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낱알이 드러낸다. 그리고 미국의 볼티모어 도시재생사례와 뉴욕의 미트패킹지구, 중국 상하이의 신텐디와 티엔즈팡까지,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례들, 경계해야 할 지점들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무려 149개의 주를 달아 출처를 일일이 밝히고 있는데 참고한 문헌만도 국내서 33권에 외서 22권, 찾아본 여러 기사와 웹사이트도 상당하다. 1960년대의 신문기사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 것도 이채롭고 풍부한 사진과 그림과 같은 다양한 시각 자료들은 저자들이 언급하는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 독자들에게 실제 그 지역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충분한 상상력이 발휘되도록 이끈다. 게다가 거주자들이나 지역의 자영업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유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아내면서 새로운 기능을 덧붙일 때 서울이란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의 싹이 잘

릴 위기에 있는 익선동과 가리봉동, 창신동에 대한 이야기들에서는 저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익선동 166번지. 현존하는 서울의 가장 오래된 한옥집단지구이자 피맛길과 고려시대 골목이 남아 있으며 태생에서부터 서민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근대 역사의 한 자락. 부끄럽게도 나는 익선동 166번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가끔씩 종로구의 어느 곳을 지나다보면 여기가 서울인가 싶은 곳들이 가끔씩 있기도 했는데...동네 방앗간과 목욕탕, 작은 야채 가게들은 물론 푸성귀를 키우는 텃밭이 있는 곳들이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엘 가면 시대를 거슬러 온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는데 익선동 166번지도 아마 그런 곳이 아닐까 싶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촌에 익숙해져 있어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은 오히려 생경하면서 궁금한 맘이 들게 한다. 여긴 어떻게 변화를 비켜왔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익선동 가는 길에 만나게 된다는 ‘낙원뿔뿔,’ 그곳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음악의 메카로서 갖는 가능성의 싹 또한 자주 그곳을 지나다니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새로운 의미로 그 곳을 읽어내게 되었다. 철거된 오진암에 대한 이야기는 맥락을 헤아리지 않는 재개발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결국, 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이란 역사적 맥락과 장소가 담아내는 그 곳의 사회적 의미, 그곳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가치를 거세한 건물 짓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건물 짓기로 인해 우리가 지키고 새롭게 살려내야 할 가치와 의미가 지워지거나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물론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박제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건 역사성과 장소성을 제대로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기에 저자들은 새로운 기능

을 부여해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하고 다시 미래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새롭게 재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다양한 호텔들, 특히 ‘물탑 호텔’이 떠올랐다. 130년 된 유럽 최대 물 저장고를 철거하는 대신 물탑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최첨단의 호텔기능을 부여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장소를 기상천외하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 옛 것을 지우지 않으면서 오늘과 연결하려는 지혜의 결과물 아닐까? 장소에 이야기를 부여하여 공간을 의미화하는 것이야말로 요즘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는 “창조경제”의 한 갈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저자들의 “3·1절 독립의 길”에 대한 제안은 참신하게 다가왔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가치와 기능을 부여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공간이 상당할텐데.....여전히 주민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으면서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공간, 익선동 166번지가 바로 그런 곳인데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재개발 압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했다.

다음으로 저자들이 주목한 구로공단 가리봉동 쪽방촌은 현대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구로공단이 있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엔 시골에서 상경해서 열악한 작업환경을 견뎌내며 청춘을 힘겨운 노동에 바쳤던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이 배여 있는 곳이다. 지금은 한 편으로는 가리봉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역명이 바뀐 데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벤처산업과 패션아울렛으로 변화한 곳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서울 속 엔벨로 불리는 중국동포타운이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새롭게 디지털산업과 패션아울렛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리봉의 한 부분에 시대를 넘어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가난한 삶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내가 대학교에 다녔던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 서울대생이었던 내게 가리봉동은 가까우면서도 먼 곳이었다. 당시 대학생들에게 구로공단은 정보가 차단되었던 상황에서 소위 “뺑”에 잡혀 들어갈 위험을 감내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독재정권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품속에 꼭꼭 숨겨 가서 돌렸던 곳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체험한다며 ‘공할(공장활동)’을 하기도 했던 곳이다. 일부 학생들은 그곳에서 진짜 노동자가 되기도 했다. 잊고 있었던 그 때 그 시절이 책을 통해 새롭게 상기되었다.

저자들은 가리봉동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그래서 그 곳이 어떤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곳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구로공단 시절 별집의 모양과 별집에서의 생활 방식, 또 지금 쪽방촌의 모습과 쪽방촌에서의 삶의 양상. 어쩌면 누군가는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는 서울의 그늘이자 수치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살았고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서울을 구성하고 있다. 지금 그곳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건축물과 새로운 기능이 들어서 있기도 하지만 그 때의 흔적을 품은 채 여전히 남아 있는 건물들도 존재한다. 현재 가리봉동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역동적인 디지털비즈니스 시티”로 탈바꿈할 계획이지만 저자들은 이런 계획에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 지역의 높은 집값과 서울이란 도시에서 갖고 있는 가리봉동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견줘볼 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제안한다. 철저히 부수고 새롭게 호화로운 사무공간이나 주거공간으로 개발하기보다 다양성의 공존이란 가치와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유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자고. 다만 그대로 보존하자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외

부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동대문 창신동 봉제공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동대문 공원화사업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들춰내 보인다. 동대문운동장이었던 그곳을 지날 때면 맥락도 없이 생뚱맞게 우주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거대한 규모로서 있는 회색빛 구조물에 맘이 상했던 나로서는 더 꼼꼼히 저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익선동과 구로공단에서도 장소의 역사성만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다른 장소들과 갖는 연결성과 사회성에 대해 저자들이 해박한 설명을 들려줬지만 창신동 봉제공장과 동대문패션타운의 연계와 착취적 위계관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맥락을 따라 장소를 이해하고 장소에 기능을 부여하며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저자들의 논의가 한층 빛을 발한다. 산업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일정한 장소 자체만을 새로운 현대 구조물로 채워넣으려 했던 서울시 뉴타운 계획(특히 창신 송인 뉴타운 계획)은 주변 지역만이 아니라 재개발되는 장소 자체의 활력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힘주어 말한다. 더군다나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는 자본만을 위한 개발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창신동은 “봉제공장, 한옥과 낙산공원, 인근의 이화동 대한영단주택단지까지, 근대 서울의 모습을 간직한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패션이라는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하철 접근성까지 뛰”어났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창신동의 잠재된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착취적 위계관계를 벗어나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기에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정거래패션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마지막 장의 보론을 통해 저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대안적 도시 가치 창조에 길이 흘

통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장에 이르기까지도 근대역사유산을 남기고 오히려 이런 유산을 새로운 기능과 접목시켜 성공시킨 여러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보론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신텐디와 티엔즈팡을 비롯한 상하이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보여준다. 그리고 원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신텐디 사례의 문제점을 짚는 것도 잊지 않으면서 옛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그대로 둔 채 지역에 창의적 기능을 부여해서 활력을 찾은 티엔즈팡의 새로운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창고건물과 도살장, 자동차 제조 공장 등을 새롭게 되살려낸 사례들을 통해 저자들은 “근대 역사유산을 남겨두는 것이 민간디벨로터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아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역사 경관을 보전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암스테르담에서 보았던 건물들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건축시기가 1600년대와 1700년대라는 표시판을 단 채 약간 기울어진 채 건물들이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들, 눈 앞에 선명하게 나타는 그 모습이 여전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을 방문할 때 큰 고층 건물이 아니라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런 곳이야말로 그 공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스며 있고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리씽킹 서울”은 도시 가치 창조의 방향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한다. 거대 토목 공사를 통해 도시를 바꾸려는 시도야말로 창의적이지 않은, 그래서 성공하기 어려운 접근이란 사실을 일깨운다. 융통성 없는 건물의 보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건물과 일정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발굴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기능을 접목시키면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도시와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흐름을 알게 되었고 공간의 기능과 사람들의 삶에 천착한 재생(renewal)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과 함께 몇 가지 궁금증이 일기도 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책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읽어내서 현장에서 구현하는 “디벨로퍼(developer)”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런 개발자는 어떻게 등장할 수 있나? 개발자와 계획가(planner)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런 개발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가? 그런 개발자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왜 그런 개발자가 없는가? 다양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특히 환경대학원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원 소속 교수로서 교육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대학원이야말로 역사성과 장소성을 중시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는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개발자를 길러내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이러한 개발자의 가치 지향은 오롯이 개발자 개인의 선택한 의지만 실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 또한 에펠로그에서 개발권 이양, 역사건물 재생 세액공제, 저소득층 주택개발 세액공제, 조세담보금융, 상업활동 촉진지구 등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을 것이다. 상하이에조차 위험한 투자로 간주되어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내기 어려웠던 신텐디 사업에 수이온 그룹 CEO 빈센트 로우의 모험적 투자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신텐디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또한 저자들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조정역

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재개발청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실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주체인 개발자가 필요하며 그런 주체들은 사회적으로 길러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 길러낼 것인가, 그 점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책에서는 북촌의 성공이 하나의 사례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에서 왜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지, 책에서 조명한 지역들이 재개발이란 족쇄를 풀 때 어떻게 그런 가능성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꼼꼼한 밑그림이 그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북촌 사례가 하나의 개발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뤄낸 게 아니었기에 다른 지역들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주민의 강제 이주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된 신텐디식 접근이나 티엔즈팡의 실험이 누군가의 현명한 의지를 기반으로 의도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다소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희망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티엔즈팡과 같은 실험이 성공하고 그런 실험들이 개발패러다임을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마지막 한 가지는 환경에너지정책 전공자로서 “리씽킹 서울”에서 주장하는 대안적 도시 재생이 그 곳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갖는 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 대규모 철거 방식은 가뜩이나 늘어나 우리 나라 폐기물 배출량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폐기물을 더 만들어 내겠지만 기존 건물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초대형 건물의 입지는 해당 건물에서 사용할 에너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이 3%가 되지 않는 현실, 가정상업부문 전

력 소비가 83.0%나 되는 현실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오는 전력에 기댄 채 지속적으로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구조물의 건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경제적 수익성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적 건전성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경제적 수익성이 오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은 도시의 가치 또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이다. 대규모 현대식 건물의 건축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란 주장을 반박하면서 더 이상 이런 접근이 해답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도시가 더 가치로워지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할 때 그것이 일부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높아진 가치로 인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 많은 관광객, 더 많은 탐방객을 불러들임으로써 일부 자본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가꾸고 지역의 특색을 지켜내며 새로운 기능을 불러들인 사람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 더 평화롭고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한다. “리씽킹 서울”-“서울 다시 생각하기”에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그 길이 열려가길 희망해본다.